

충남도, 산하연구기관 “네트워크” 구축

- 연구기관 전문분야별 활용, 연구기능 특성화·연구원 POOL제 운영 -

충청남도는 6개 산하·출연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, 다양한 인적자원과 연구과제·정보교류 활성화를 통하여 도·시군정 싱크탱크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.

이를 위해 연구기관의 연구책임을 맡고 있는 연구실장 7명으로 자생조직인 연구협의회를 구성하여 매 분기 정례적 회합을 통해 도·시군정 관련 각종 연구과제 수행에 대한 사전 협의와 함께, 시급을 뺀다는 당면 현안과제의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워크숍 개최 등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.

또한 각 연구기관의 기능에 맞는 전공분야를 활용 ▲종합연구분야는 충남발전연구원 ▲산업분야는 전략산업기획단 ▲여성/교육/노인분야는 여성정책개발원 ▲농업분야는 충남농업테크노파크(T/P) ▲역사/문화분야는 충남역사문화원 ▲환경분야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맡아 각각 연구기능을 특화한다고 밝혔다.

이들 연구기관은 도·시군 증장기계획수립 등 연구협력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구 주관기관의 요청에 의해 관련분야를 적극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연구역량을 극대화 할 계획이다.

아울러, 연구원별로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는 연구원(박·석사 103명)의 인력 pool제를 운영 도·시군 정책추진 자문연구원 및 연구기관간 연구과제 수행시 상호 활용할 계획이다.

도 관계자는 “도·시군정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연구기관의 네트워크구축으로 시의성 있고 한 차원 높은 정책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”고 말했다.

이번에 네트워크 구축기관은 ▲충남발전연구원 ▲여성정책개발원 ▲충남역사문화원 ▲전략산업기획단 ▲농업테크노파크 ▲충남보건환경연구원 등 6개 기관이며 연구원(박/석사) 103명이 근무하고 있다.